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2020년 12월 23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9천 km <sup>2</sup> 	<b>인구</b> 29만 명 (2020 <sup>e</sup> ) 	<b>정치체제</b> 프랑스 해외령 	<b>대외정책</b> - 
<b>GDP</b> 95억 달러 (2020 <sup>e</sup> ) 	<b>1인당GDP</b> 33,116달러 (2020 <sup>e</sup> ) 	<b>통화단위</b> Comptoirs Français du Pacifique(CFPfr) 	<b>환율(US\$기준)</b> 105.8 (2020 <sup>e</sup> ) 

- 뉴칼레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쪽으로 1,500km,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1,700km 지점의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섬으로, 주민은 카낙족(토착 원주민), 유럽인, 폴리네시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60%)과 개신교(30%)가 주를 이루고 있음.
- 1853년 프랑스 제2제정 당시 나폴레옹 3세 황제에 의하여 프랑스 영토로 편입되었고, 1956년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France d'outre-mer) 중 하나로 통합되었음. 현재 외교, 국방, 사법, 통화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정부재정 등을 지원받고 있음.
- 2019년 기준 세계 5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산업구조가 니켈 생산 및 수출에 편중되어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상태로 추정됨.
- 연중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깨끗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여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 이후 관광업은 소강 상태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프랑스 해외영토)

주요협정 (프랑스 해외영토)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91,066	141,398	50,206	수송기계, 기타 석유류
수입	287,638	342,480	250,913	니켈광, 합금철

해외직접투자현황(2020.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건, 172,515천 달러

## 위치



##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f</sup>
경제성장률(%)	2.1	1.6	1.6	1.1	-4.2
GDP 규모(억 달러)	90	94	102	98	95
소비자물가상승률(%)	0.6	1.4	1.3	0.2	-0.3
재정수지/GDP(%)	n/a	n/a	n/a	n/a	n/a
경상수지(억 달러)	-6.5	n/a	n/a	n/a	n/a
경상수지/GDP(%)	-7.3	n/a	n/a	n/a	n/a

자료: EIU

## 국내경제

### 니켈 산업 침체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영향으로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

- 니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뉴칼레도니아 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니켈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20년 들어 니켈 국제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가 불안정하고, 니켈 기업들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니켈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10년 간 니켈 국제가격 추이



자료: LME(런던금속거래소)

- 또한 뉴칼레도니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동금지 등 봉쇄령을 실시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소비 역시 급감하였으며 관광객 입국이 전면 중단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미미한 수준이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아 -4%대 초반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추정됨.

## 국내경제

### 독립된 통화정책이 부재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소폭 마이너스 추정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해외영토(France d'outre-mer)로서 별도의 중앙은행 없이 프랑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정책금리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에 의해 좌우됨. 통화인 프렌치 퍼시픽프랑(CFPfr)의 환율은 유로당 119.3CFPfr로 고정된 페그제로 운영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과 전반적인 소비 감소가 공급망 교란에 따른 수입 가격 일부 인상을 상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 수준으로 추정됨.

### 정부 재정은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원조에 크게 의존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재정은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재정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 대외거래

###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추정

- 경제·산업구조가 니켈광 및 니켈 제품의 수출에 편중되어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경상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환도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에 매년 약 14억 달러의 재정 이전(financial transfer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뉴칼레도니아 GDP(102억 달러)의 13.7%에 달하는 금액임. 따라서 외채상환 역시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다만, 2022년 국민투표 결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프랑스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감소하고 지원자금의 용도가 개발자금으로 제한되어 외채상환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됨.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외환보유액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 구조적취약성

### 니켈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니켈 산업 침체에 따라 성장동력 약화

-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산업은 GDP의 약 17%를 차지하고 상품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니켈의 국제 가격 및 국제수요 변동이 뉴칼레도니아 경제를 좌우하고 있음.
-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뉴칼레도니아는 2019년 기준 세계 5위의 니켈 생산국(연간 22만 톤)이며, 정확한 매장량은 확인되지 않았음. 광업 전문 언론사인 Mining.com은 뉴칼레도니아가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1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전 세계 매장량 약 8,900만 톤).
- 노동쟁의, 높은 운영비용, 가격 정체 등으로 니켈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광산 기업들의 적자가 계속되고 성장동력도 저하된 상황임. 이에 뉴칼레도니아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니켈 산업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뉴칼레도니아 3대 광산기업인 VNC(Vale New Caledonia)의 모회사 Vale은 VNC가 막대한 손실을 지속함에 따라 뉴칼레도니아 시장 철수를 결정하였음. 2020년 5월 호주 광산기업 New Century Resources가 VNC 지분 매수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9월 매수를 포기하였으며, 평가일 현재까지 적절한 매수 후보자를 찾지 못해 2021년에는 VNC의 니켈 광산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Vale은 브라질에 소재한 세계 최대의 니켈광석(nickel ore) 및 철광석 생산업체로 VNC의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뉴칼레도니아의 3개 주 정부가 공동 투자하였음. VNC의 사업장인 고로(Goro) 광산 운영이 중단될 경우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니켈 생산 및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됨.
- 독립 찬성파와 원주민 카낙족 세력은 니켈 자원이 뉴칼레도니아의 경제·정치적 독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해외 광산기업의 추가 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니켈 제조품이 아닌 니켈광석의 수출은 뉴칼레도니아 내 제조공정 발달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킨다며 니켈광석 수출을 줄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VNC의 매수자를 찾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지속

- 니켈 생산 외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주로 소기업에 의해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가공품을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하는 정도에 그침.
- 니켈광석 및 니켈 제품 외의 다른 수출품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주요 수출상대국인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등의 경기변동에 따라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음.

※ 2019년 상품수출액의 국가별 비중(EIU 추정) : 중국 56.2%, 한국 13.7%, 일본 11.5%, 대만 3.2%

-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은 프랑스 본국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건, 교육, 공무원 급여 지급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높으나 코로나19로 관광객 입국 재개 시점 불확실

-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는 연평균 기온 20~28도의 온화한 열대성 기후로 인해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를 보유하여 2019년까지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왔음.
-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뉴칼레도니아 국토의 6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되었으며, 호텔, 해양 스포츠 등의 관광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전면적인 이동제한을 실시하면서 관광객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6월 이동제한령 해제 후에도 국경 봉쇄는 계속되어 자국민의 귀국 및 공무를 위한 프랑스 공무원의 방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까지 입국이 금지된 상태임.
- 이에 따라 뉴칼레도니아의 관광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으며, 내년 3월 이후에도 봉쇄령의 추가 연장 가능성 및 해외 관광수요 회복 시점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년 수준의 관광산업 규모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성과

### 신성장 동력 개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은 성공 전망이 불투명

- 자치정부는 경제의 신성장 동력 개발,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한 생필품 고물가의 개선 등을 위해 전력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니켈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는 정책의 성공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임.
-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 니켈 산업을 대체할 유력 성장동력이던 관광산업의 중단, 독립을 둘러싼 정치·사회 갈등 등으로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진 상황임.

## 정치동향

###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점차 세력을 얻고 있어 독립 가능성 고조

- 1998년 프랑스 정부와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간에 체결된 누메아 협정에 따라 2018년 11월 및 2020년 10월 독립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 모두 독립 반대가 찬성을 앞질러 프랑스 해외 영토로 잔류하였음.
- 누메아 조약은 동국을 프랑스의 해외영토로 명시하고 정부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며 2014~19년 사이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독립 찬성파는 2018년 국민투표에서 찬성(43.6%)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데 고무되어 국민투표 추가 실시(2020년, 2022년)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0월에 2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음.
- 독립 찬성파는 2020년 10월 국민투표 결과 찬성(46.7%)이 1차 국민투표에서보다 늘어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2022년에 다시 독립 여부를 묻는 3차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는 등 과거에 비해 독립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2019년 5월 의회 선거에서 총 54석 중 독립 반대파가 28석(1석 감소), 독립 찬성파가 26석(1석 증가)을 차지하여 양측이 거의 대등해진 상황으로, 내각 역시 전체 11개 장관직 중 독립 반대파가 6자리, 독립 찬성파가 5자리를 차지하였음. 다만, 독립 찬성파의 강력한 응집력에 비해 독립 반대파는 연합 정당 간에 사안별로 의견이 분열되고 있음.

## 사회동향

###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자리 부족, 독립 추진 관련 갈등 등으로 시위 발생 가능성 상시 잠재

-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서국(島嶼國)의 특성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 환경오염 증가, 경제규모 협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특히 교육과 고용 기회가 백인계 주민에 비해 부족한 원주민 카낙족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일으킴.
- 최근에는 VNC의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독립 찬성파와 카낙족이 해외 광산기업의 진입을 반대하고 국내 기업이 VNC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음.
- 시위는 니켈 광산이 위치한 고로 지역에서 수도인 누메아까지 확대되면서 11월 중순에는 의회 진입로를 차단하려는 시위대를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하여 해산시키는 등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
- 독립 찬반을 둘러싼 직접적인 소요 발생 가능성 외에도, VNC 사례처럼 독립을 지지하는 계층과 반대하는 계층 간의 갈등이 경제·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잠재되어 있음.



## 국제관계

###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서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에 종속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외교·국방·사법 권한이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있어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의 국제관계에 종속됨.

##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뉴칼레도니아의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제시장평가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이므로 OECD 등은 별도의 신용등급 부여 없음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는 뉴칼레도니아를 별도의 독립국으로 간주하지 않아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뉴칼레도니아는 세계 5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원자재 국제가격 약세로 니켈 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2017년 이래 1%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왔음. 올해는 니켈 수출의 침체 지속에 더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하고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어 마이너스 성장이 추정됨.
- 2018년에 이어 2번째로 치러진 독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53.3%)가 찬성(46.7%)을 앞질러 프랑스 해외영토로 잔류하였음. 그러나 2018년 투표보다 찬성표가 늘어났으며, 2019년 5월 의회 선거에서는 총 54석 중 독립 반대파가 28석, 독립 찬성파가 26석을 차지하는 등 양측이 거의 대등해진 상황임.
- 현재까지는 프랑스 해외영토라는 지위를 감안하여 외채 및 대외결제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2022년 국민투표 결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추진될 경우 프랑스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외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